

# 모진 세월 가슴을 찌여 온 그 얘기, 4·3

## 제주도우다 1~3

현기영 지음



“우리는 북조선도, 남조선도 아니고 제주도우다(입니다).” 해방되고 삼팔선이 그어진 직후,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에서 귀향하려는 이들에게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한결같이 답했다. 좌·우익으로 구분 짓던 해방공간에서도 답은 마찬가지였다. 제주 청년들은 고향 땅 흙 한줌을 무명천에 곁에 써서 떠났고, 귀향해 제주 땅을 밟을 때도 앞도려 얼굴을 흙에 부본다. ‘제주도우다’라는 제주 토박이말에는 육지 사람들에게 ‘물 건너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 어려운 망망대해, 거친 파도 속의 원악도(遠嶽島)’인 제주 섬사람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오롯이 담겨있다.

현기영(83) 작가가 최근 1948년 4·3을 정면으로 다루는 대하소설 ‘제주도우다’(전 3권)를 펴냈다. 독자 정권 시절이던 1978년에 단편소설 ‘순이 삼촌’을 발표하지 45년 만에 선보이는 역작이다. 작품은 16살 때 4·3의 소용돌이에서 죽음을 문턱까지 걸려갔던 안장세가 다류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30대 외손녀 부부에게 ‘모진 세월 내 가슴을 찌여온 그 얘기’를 회고 형식으로 들려주며 전개된다. 시기적으로는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3년부터 4·3 토벌이 이뤄진 1948년 겨울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11살부터 16살까지 5년 동안 격변의 제주 현대사를 고스란히 겪은 노인 안장세는 자신을 ‘살아있는 죽은 자’라고 표현한다.

“그 사건 후로는 모든 게 헛것으로 보여 무얼 쓸 수가 없었어. 모든 것이 헛것이고 그 사건만이 진실인데, 당최 그걸 쓸 엄두가 안 나는 거라. 무서워서. 그걸 글로 써야 하는데, 그걸 쓰고 싶는데 무서워서 말이야. 어, 지금도 무서워…….”

어릴 적 시인이거나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안장세의 말



제주 4·3 당시 눈보라 속에서 희생된 25살 어머니(변병생)와 두 살배기 딸의 실화를 토대로 제작된 작품 ‘비설’(飛雪). <광주일보 DB>

이 작가의 목소리와 오버랩된다. 작가는 누구도 4·3을 차마 입 밖에 올리지 못하던 암흑한 때에 ‘순이 삼촌’을 발표한 후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다. 그럼에도 작가는 이후에도 4·3을 일생의 화두(話頭)로 삼아 끊임없이 작품을 썼고 이번 기념비적 역작을 내놓았다. 작가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이 작품은 4·3영령들이 제게 명령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꼬박 4년을 매달려 완성한 팔순 작가의 집필 의도는 ‘작가의 말’에서 드러난다.

“그 당시 청년들을 사로잡았던 열정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는지, 삶과 죽음은 무엇이고 인간은 또 무엇인지를 작가는 이 소설에서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해방을 거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우지는 1948년까지의 시대상황과 제주 사람들의 대응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1권은 1943년부터 해방까지, 2권은 해방부터 1948년 3·1절 총력사건까지, 3권은 4·3의 전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야기는 이민화와 정두길, 부대민, 양순태, 고승우,

박달보, 장영발 등 청년 활동가를 중심으로 두고, 제주 어느 지역보다 항일 투사를 많이 배출해 ‘역항’(逆郷·반역의 땅)이라는 별칭을 얻은 해변마을 조천리를 주무대로 삼아 펼쳐진다. 작가는 시선을 따라 해방 이듬해 덕덕 대총련과 굽주림, 전염병 창궐, 친일파 재등용, 단독정부 추진 등 제주의 상황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어느 해 제주에 큰 기쁨이 들었을 때 굽주린 백성을 위해 나누

양곡을 싣고 돌아오며 겪었다는 새코알(조천포) ‘구렁배암 설문대할망’ 전설 등 소설 곳곳에 제주의 풍광과 정서가 배어있다.

‘일제에 의해 세뇌되었던 정신을 깨는 무서운 천둥벼락’과도 같았던 해방을 맞아 새나라 건설을 꿈꾸던 청년들의 열망은 국가폭력에 의해 꺾이고 만다. 해녀와 테우리(마소를 방목해 키우는 사람)로 사는 평범한 젊은 여성들도 희생되고 만다.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국가의 폭력에 내몰려 희생당한 제주 원혼들을 위로한다. 3권에서 토벌에 나선 군·경과 서북청년단 등 국가의 가혹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는 민초들의 모습은 독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75년 전 일어난 제주 4·3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현대사의 뿌리를 찾아나서는 발걸음은 제주 4·3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좌·우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결하는 현 상황 속에서 과거사를 설원(雪圓)할 해법이 ‘제주도우다’에 녹아있다. <장비·각 1만7000원> <송기송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무아, 그런 나는 없다=저자는 ‘참된 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무아론을 논증한다. 형이상학, 심리철학, 서양 현대철학을 거쳐 현대인의 자아를 ‘나는 누구인지’, ‘자아와 혼이 무엇인지’, ‘붓다가 제시한 무상이 무엇인지’ 등 불교철학을 통해 다룬다. 책은 서양철학의 대표주자 데카르트의 논증까지 살펴 인간존재를 성찰, 증명하는 방법들을 살펴본다. <김영사·1만4800원>

▲인물지=많은 사람들은 미디어 시대의 홍수 속에서 ‘사이비 인재’에게 현혹된다. 그 속에서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는 길라잡이 책. 저자는 삼국지 속 조조의 인사참모 유소가 집대성한 ‘인물지’를 원전으로 삼았다. 그가 인재를 기용하던 방법을 소개하고, 한나라에 만연했던 인사 방법론의 폐단까지도 담아낸다. 책은 ‘영웅’, ‘집사’, ‘팔관’, ‘석쟁’ 등을 인사선택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통할 것으로 보인다. <사공사·2만3000원>

▲하루하루 감정 정화 연습=마음 소통 전문가의 감정 돌봄을 위한 지침서. 저자는 감정을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적 시선으로 보지 않고 ‘맑음’과 ‘혼탁’으로 바라보기를 제안한다. 혼탁한 감정이 맑음으로 정화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은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저자가 제시하는 마음의 본모습부터 <크레타·1만8000원>



감정을 정화하는 흐름까지를 따라가다 보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시선·1만8000원>

▲포스트 챗GPT, 역량 디바이브=챗GPT의 등장인 업무환경의 격변을 가져왔다. ‘프로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라면 조직에도 AI 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인 시대. 책은 인공지능이 바뀌버린 노동의 지형도를 살펴보고 직장인을 위한 챗GPT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어떤 질문을 입력할지부터 기본적인 사용법까지 AI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나아가 챗GPT ‘역량 디바이브’라는 심화내용을 통해 취업, 채용, 성과관리 방법까지 이야기한다. <크레타·1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오래오래=독버섯을 먹어버린 다람쥐가 학과 거북이, 사슴, 해와 달 등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는 이야기. 다람쥐는 숲속에서 먹었던 버섯이 독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꼬꼬리와 사슴, 학과 거북이, 소나무 등을 차례로 만나며 오래 사는 비결을 물어보지만, 만나는 자연마다 모두 ‘나보다 오래 산 존재’를 추천해 준다. <봄봄·1만5000원>

▲한 외로움이 다른 외로움에게=살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느낄 외로움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쉽게 풀어낸다. 마을에서 늘 무관심의 주인공이던 ‘앙리 할아버지’는 플로르 버스정류장에 살며 고독감

을 느낀다. 우연히 아기 코끼리를 만나게 된 이후 서로의 슬픔을 안아주고 치유의 감정을 떠올린다. 쓸쓸했던 할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은 아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책읽는곰·1만5000원>

▲전학일기1=수박 서리=도시 빌딩 숲에 살아가는 현대의 아이들에게 ‘수박 서리’는 낯선 일이다. 주인공은 이제 막 시골로 전학 온 아이, 동네 형에게 수박 서리 제안을 받게 된다. 수박을 서리하는 것도 미숙하지만 몽환적인 분위기가 풍부하다. 주인공의 풍부한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우기에도 좋다. <좋은땅·1만5000원>

#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가... 일상서 만나는 철학

## 철학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이충녕 지음



‘철학’ 서적을 펴내며 저자는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전문 용어에서 시작하는 설명이 아니라, 끝에 가서 저절로 전문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적인 예시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사람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철학자 클라크(1957-)의 ‘인간 정신은 사물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주장은 매일 저녁 ‘6시 내고향’과 ‘KBS 뉴스’를

챙겨보는 할머니를 등장시켜 이야기하는 식이다. 또 ‘전체적인 방향성이 옳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줘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독일 철학자 벡이 제기하는 ‘환경보호 활동가가 매연을 배출하면 비난받아야 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한다.

‘철학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세상에 의문을 던지는 53가지 철학 이야기’는 1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충코의 철학 Chungco’ 운영자인 충녕이 펴낸 책이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저자는 인류 사상을 주도했던 40명의 철학자들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엮었다. 책은 먼 고대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떤 철학적 사고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소개하는 책으로 사상을 시대순으로 배열해 사고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이 드러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그의 철학 이야기는 ‘해리포터는 실제로 존재할까?’, ‘내로남불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가’ 등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다.

책은 ‘물처럼 산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노자에서 출발한다. 이어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맹자, 칸트, 하이데거, 헤겔, 니체, 포퍼 등으로 이어진다. 현대 철학자들에게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한 점이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다. ‘모든 나라가 서로를 돕는다면 어떻게 될까’(자오팅양), ‘알파고는 바둑에서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할까’(호글랜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책 말미에는 ‘확실한 지식은 존재하는가’, ‘올림픽이 갑주는 진실’ 등 저자의 철학적 단상을 실었다.

<도마뱀·1만8000원> <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